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Seung-Cheol Yang*, Tae-Kon Oh**

*Student, Division of Busines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Lecturer, Dept. of Law & Police, Howon University, Gun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lications that the level of sound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could be raised, starting with the awareness that not only college students but also all financial consumers need high levels of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such a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financial management, as economic conditions are in trouble in the aftermath of the ongoing Corona19.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n relation to the research model set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self-efficacy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s the dependent variable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study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had an effect on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 **Key words:** College Student,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요 약]

본 연구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높은 수준의 재무관리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생들의 건전한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독립변수는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는 재무관리행동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대학생, 재무관리역량,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 다중회귀분석

-
- First Author: Seung-Cheol Yang, Corresponding Author: Tae-Kon Oh
 - *Seung-Cheol Yang (rjtjr333@hanmail.net), Division of Business, Chosun University
 - **Tae-Kon Oh (t6713@naver.com), Dept. of Law & Police, Howon University
 - Received: 2020. 09. 09, Revised: 2020. 09. 17, Accepted: 2020. 09. 23.

I. Introduction

개인들의 재무관리는 평생 동안 스스로의 삶의 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소득 내에서 재무관리를 통하여 소비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생활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위험 등의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를 대비하게 된다[1].

더욱이 오늘날 금융시장이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재무관리역량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함으로써 인하여 한정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현명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높은 수준의 재무관리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주어서 그들이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바, 대학생들의 건전한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무관리역량(Financial Magement Ability)이란 “재무환경이나 금융환경 등의 특정 맥락 하에서 금융소비자가 재무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

재무적 자기효능감(Financial Self-Efficacy)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등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3].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정우진(2018)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이란 “재무적 목표달성이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감이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으로 정의한 개념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재무적 효능감이란 “자신들 스스로가 본인의 재무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이란 “재무적인 목표를 수립한 후에 재무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탐색한 후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의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변수의 선정에서 독립변수는 재무관리역량, 종속변수는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적인 관계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생의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 대학생의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 연구문제는,

1.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 대학생들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3.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I. Advanced research

재무관리역량,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돈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5년 이필수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중 근심 차원, 불신 차원, 파워·명성 차원 등에 유의한 영향과 가입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세대별 인구를 대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세대별 재무만족도 수준 및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18년 정순돌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세대별로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7].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조절효과의 변수로 사용하여 소비자의 재무스트레스 경험과 영향요인에 관한 2018년 정우진의 연구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스트레스 경험여부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재무관리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역량의 실태를 분석한 2012년 최윤나의 연구결과, 노인소비자들은 지식역량이 부족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무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노인소비자들은 재무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해서 분석한 2014년 김하영의 연구결과,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기통제수준 그리고 금융거래경험 모두는 재무관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저축행동 및 투자행동과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4년 장혜원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 저축 및 투자행동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재무관리역량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의사소통과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4년 한가은과 김정숙의 연구결과, 재무스트레스 및 재무의사소통 모두는 직접적으로 재무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일반 성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교육과 재무상담이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5년 김창이의 연구결과, 재무관리역량에 재무교육과 재무상담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과 재무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9년 이현복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재무관리 역량의 수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4년 이지혜의 연구결과, 재무스트레스는 재무지식에 그리고 재무지식은 재무관리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 주었다[1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련 요인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5년 한가은의 연구결과, 재무관련 요인 중 재무지식을 제외하고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 재무의사소통, 재무스트레스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사회초년생의 재무스트레스와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2016년 김아름의 연구결과, 재무스트레스와 금융이해력의 구성요소들은 재무관리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 주었다[17].

량, 종속변수는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관리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순차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measuring instrument

2.1. Financial Magement ability

대학생을 위하여 구성된 재무관리역량 척도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대학생의 특성에 맞게 단순화 시켰다.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는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총 67문항으로 김하영(2014)[18]과 김창이(2015)[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재무관리지식은 24개 문항으로 “수입지출관리지식”, “저축과 투자지식”,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의 영역으로, 재무관리태도는 20개 문항으로 “계획관리태도”, “신용과 부채관리태도”, “미래대비태도”의 영역으로, 재무관리기능은 23개 문항으로 “위험관리기능” “일상적 재무관리실천기능”, “금융환경대처기능”, “계획관리기능”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2.2. Financial Self-efficacy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총 5문항으로 정우진(2018)의 연구[20]에서 사용한 설문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나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음”, “나는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발생한다면 대출을 받을 계획임”, “나는 내가 설정한 재무적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음”, “나는 재무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면 해결을 잘하는 편임”, “나는 생각지도 않은 지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세운 계획을 유지하려고 할 것임” 등의 측정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문항들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3.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설문문항들은 총 8문항으로 이지혜(2014)의 연구[21]에서 사용한 설문을 토대

III. Study Design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Setting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변수의 선정으로는 독립변수는 재무관리역

로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빌린 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갚음”, “금융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탐색하는 편임”,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음”,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음”, “금전출납부 등을 통하여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함”, “저축을 할 때는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을 알아 봄”, “금융기관은 한 군데만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함”, “나의 용돈수준과 소비욕구를 분석해서 예산계획을 세움” 등의 측정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문항들에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상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평균을 통한 기술통계량 그리고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설문조사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교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문제 있는 답변의 설문지를 제외한 457명의 설문지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성별로는 남학생은 239명, 52.3%이고 여학생은 218명, 47.7%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102명 22.3%, 2학년은 148 32.4%, 3학년은 121명 26.5%, 4학년은 86명 18.8%를 차지하고 있다.

IV. Analysis Result

1. Technical Statistics of Variables

1.1. Financial Magement ability

설문대상자들의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재무관리지식은 “수입지출관리지식”(M=3.47) 변수가 가장 높게, “위험관리와 보험지식”(M=3.15)의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태도는 “계획관리태도”(M=3.65) 변수가 가장 높게, “신용과 부채관리태도”(M=3.10)의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기능은 “계획관리기능”(M=3.58) 변수가 가장 높게, “금융환경대처기능”(M=3.22)의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Financial Magement ability

division	measurement item	mean
Financial Management Knowledge	Income Expenditure Management Knowledge	3.47
	Savings and Investment Knowledge	3.36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Knowledge	3.15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Planning Management Attitude	3.65
	Credit and Debt Management Attitude	3.10
	Future preparedness	3.40
Financial Management Functio	Planning Management Function	3.58
	Financial Environment Handling Function	3.22
	Daily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 Functions	3.29
	Risk management function	3.30

1.2. Financial Magement ability

설문대상자들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수준은 “나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음”(M=3.75) 변수가 가장 높게, “나는 재무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면 해결을 잘하는 편임”(M=3.1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Financial Self-efficacy

division	measurement item	mean
Financial Magement ability	I am confident about my financial management	3.75
	I am planning to take out a loan if I have unexpected expenses	3.50
	I can achieve my financial goals well	3.37
	I'm good at solving financial problem	3.18
	I will try to maintain the original plan even if unexpected expenses occur	3.39

1.3. Financial Magement ability

설문대상자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음”(M=3.66) 변수가 가장 높게, “금전출납부 등을 통하여 소비지출 내역을 기록함”(M=3.0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f Financial Self-efficacy

division	measurement item	mea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Pay back even a small amount at a fixed time	3.41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instruments is searched through promotional media	3.39
	Know how much you earn and spend every month	3.66
	Saving money for the future	3.25
	The details of consumption expenditure are recorded through the cash register, etc	3.07
	Know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t maturity when saving money	3.31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limited to one place, but use multiple financial institutions if necessary	3.40
	I made a budget plan by analyzing my pocket money level and desire for consumption	3.36

2. Verifying the Hypothesis

2.1. Financial M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Self-efficacy

표 4.와 같이 $p < 0.05$ 수준에서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2.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표 4.와 같이 $p < 0.001$ 수준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2.3. Financial Magement abilit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표 4.와 같이 $p < 0.01$ 수준에서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의 높은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4. Test of hypothesis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Beta	t값	Sig.
Financial Magement ability	Financial Self-efficacy	.349	.339	.017*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335	.321	.000***
Financial Magement abilit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315	.315	.001*

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수준은 “나의 재무 관리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달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무관리역량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에,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그동안 일반금융소비자는 물론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고 이들 변수들에 대해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많은 편이다. 하지만 재무적 자기효능감의 변수를 사용하여 재무관리역량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설문대상자들은 현재 대학생의 지위이지만 머지않아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을 갖게 되면 소득을 직접 확보하여 지출도 스스로 하게 된다. 잘못된 재무관리행태는 그들에게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의 진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재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요인과 그 외에 재무관리와 관련 있는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진행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두고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재무관리역량, 재무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연구변수들 간의 가설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로는, 먼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재무관리지식은 “수입지출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는 “계획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은 “계획관리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무

REFERENCES

- [1] HyunBoc Lee, “Comparing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conomic Power of College Students,”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1, pp.289-309, Feb, 2019.
- [2] Hyewon Jang·Sungwoo Park·Jisun Sin·Suwan Lee·MinJeung Ki,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Behaviors of Savings and Inve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Human Ecology, Vol. 18 No. 1, pp.199-218.
- [3] PhilSoo, Lee·YongKi, Lee·Dongkuen, Yoo·SeungSub, Kim,

- "Money Attitude: Its Relationships with Financial Self-efficacy and Adoption Intention of Pension Savings,"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 33, No. 4, pp.113-124, Aug, 2015.
- [4] WooJin, Jung, "A Study on Consumer's Financial Stress Experience and Influencing Factor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y and Financial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 2018.
- [5] GaEun Han,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Factors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of the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Feb, 2015.
- [6] PhilSoo Lee, et al., *op. cit.*
- [7] Soondool Chung·SoHyun Joo·EunHee Koh·WonJoo Park, "Intergenerational Financial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in Korea: Focusing on Financial Self-Efficacy,"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 11, No. 1, pp.91-121, Feb, 2018.
- [8] WooJin, Jung, et al., *op. cit.*
- [9] Yunna Choi, "A Study on the Financial Competency of Elderly Consumer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 2012.
- [10] AhYoung Kim,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dulthood : Focusing on Independence, Self-control, and financial experiences,"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Aug, 2014.
- [11] Hyewon Jang·Sung-woo Park·Jisun Sin·Suwan Lee·MinJeung Ki,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Behaviors of Savings and Inve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Human Ecology*, Vol. 18 No. 1, pp.199-218.
- [12] GaEun Han·JeongSook Kim, "The Effects of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Communication on the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s in Jeju area," *Financial Consumer Research*, Vol. 18 No. 1, pp.29-61, Feb, 2015.
- [13] Changyi Kim, "The effect of financial consultation and financial education on consumers'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y,"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Aug, 2015.
- [14] HyunBoc Lee, et al., *op. cit.*
- [15] JiHye Lee, "The Study of The Financial Distress Level, Financial Knowledge Level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Feb, 2014.
- [16] GaEun Han, et al., *op. cit.*
- [17] AReum Kim, "The Effects of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Distress 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the Young Adult,"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Aug, 2016.
- [18] AhYoung Kim,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dulthood : Focusing on Independence, Self-control, and financial experiences,"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Aug, 2014.
- [19] Changyi Kim, et al., *op. cit.*
- [20] WooJin, Jung, et al., *op. cit.*
- [21] JiHye Lee, "The Study of The Financial Distress Level, Financial Knowledge Level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Feb, 2014.

Authors



Seung-Cheol Yang received the M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18. He is currently studying for a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Chosun University.

He currently works as CFO of Korea Prime Pharm. Co., Ltd. He majored in financial management and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CSR, CSV.



Tae-Kon Oh received the Ph.D. degree in Law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05. He work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Chosun University, Jeonnam State University and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He is currently, a chairman of the editorial board i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e majored in Public law and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